우암학원 창학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全南日報

제10002호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음력 4월 16일

somic 서울디엠씨
아파트·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속도… 교통난 해소책 관건

광주시-현대百, 상호협력 협약
문화·예술 접목 건축디자인 공개
교통보완책 놓고 시-사업자 이견
공공기여금 이외 추가 부담 난색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광주 최대 규모 복합쇼핑몰이자 랜드마크가 될 '더 현대 광주' 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와 사업 주체인 ㈜현대백화점은 협약을 통해 '더 현대 광주'의 원활한 추진과 소상인과의 상생, 지역 경제·문화·관광 활성화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다만 교통난 해소 대책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가장 우선적인 사안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다. 광주시는 원활한 교통 진행을 위해 현대 측에 교량 건설 및 우회 도로 신설을 요구했지만, 현대는 '공공기여금'외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현대백화점은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시장, 정지영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현대백화점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의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신속·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행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더 현대 광주'를 광주의 고유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 현대 광주'의 건축디자인도 공개됐다. 세계적 건축가인 '헤르조크&드뫼롱'이 맡았다. '헤르조크&드뫼롱'은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런던의 테이트 모던,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등을 설계했다.

더 현대 광주 조감도.

현대백화점 정지영 대표이사는 "더 현대 광주는 더 현대 서울을 뛰어넘는 도전의 기회일 것이고, 완성 시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 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 인허가를 완료한 뒤 착공할 계획이다. 준공 및 개점은 2027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다.

전체적인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큰 난제는 '교통'이다.

일산방직 일대는 '더 현재 광주'가 들어설 경우 하루 8만대, 가장 혼잡할 때는 시간당 8000대까지 차량 왕래가 예측되고 있다. 기존 도로 구조로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피할 수 없다.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계획과 관련해 현대측에 7가지 항목의 교통 보완책을 마련하라며 수정 의결했다.

제시된 보완책을 보면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할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사업지를 관통하는 35m 폭 차로의 건축선을 후퇴하는 이른바 셋백(Set Back·건축선 후퇴) 구간 확보 등이 명시됐다. 또 광주천을 지날 수 있는 교량 신설도 요청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필수조치이지만, 문제는 돈이다.

현대로서는 셋백구간 확보를 위해선 사업면적을 줄여야 하고 여기에 교량과 추가 도로 개설 비용 부담시 수백억원의 추가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사업자 측은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사전협상에 따라 5899억원을 이미 공공기여로 내겠다고 밝힌 만큼 도로 개설 비용 등은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는 다른 의견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과 교통영향평가는 다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6월 열리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현대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향후 사업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일정 비용을 시와 현대가 나눠 부담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 김 생산액, 수산물 최초 8천억 기록

올해 40만8천톤… 전국 82% 차지
유럽 등 수출 확대 지역경제 '효자'

전남지역 김 생산액이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8000억원 고지에 올라섰다.

전남도는 2024년산 물김 생산 종료 결과 생산량은 40만8000톤, 생산액은 8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물김 시군별 생산액은 진도 2284억원, 고흥 2162억원, 완도 1320억원 순이다. 전국 생산량 50만9000톤 대비 80%, 전국 생산액 9742억원의 82%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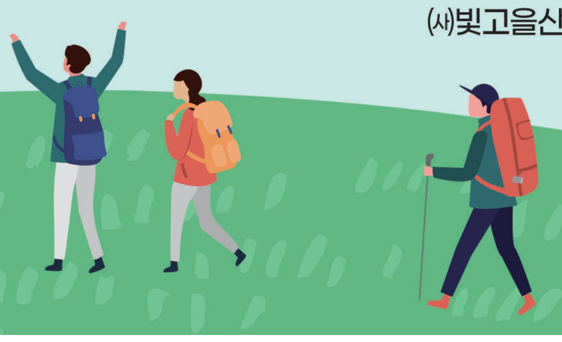
전년 대비 생산량은 1만7000톤 증가했으며, 생산액은 3500억원 늘어났다. 생산액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122개국 김 수출 확대와 재고율 감소, 중국과 일본의 작황 부진 등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광활한 김 양식 어장을 생산 초기 단계부터 본격 채취까지 불법 시설물의 강력한 단속과 일제 정비를 통해 적정 생산을 유도했다. 김 양식장 면적은 617㎢로 어류, 해조류, 패류 등 82개 양식 품종 중 가장 넓은 면적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212배 규모다. 또한 안정적 김 생산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2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규 김 활성처리제 및 부가장치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고효율 김 활성처리물질 신규개발로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친환경 이미지 제고 및 안정적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올해 좋은 품질의 김이 많이 생산돼 김 양식 어업인의 소득이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김이 효자 품목이 됐다"며 "앞으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김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5·18토크콘서트 22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공학관 1층 소강당에서 열린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5·18 토크 콘서트'에서 서부원 살레시오고 교사와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교수가 5·18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날 콘서트에는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과 임채현 목포해양대 교무처장, 목포해양대 학생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5면 나건호 기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질 유산, 무등산을 걷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전남일보가 '제18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를 갖습니다.
광주광역시·화순군·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시도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산행은 문빈정사 광장을 출발해 자율 산행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무등산의 풍경을 만끽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며,
등반과 함께 정화활동을 펼치는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무등산의 추억'을 담아가실 시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 일 시 - 2024년 6월 15일 (토) 오전 8시30분
- 장 소 - 문빈정사 앞 광장 (집결)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3일 (월) ~ 6월 10일 (월)
- 인 원 - 300명 선착순 접수
- 1365 자원봉사포털 이용 자원봉사 가능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 참여방법 - 홈페이지(www.jnilbo.com) 접속,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문 의 - 062) 519-0730~1
- 주최주관 - 전남일보 · 전일엔컬스
- 후 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순군 · 담양군
  전남대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